



출구가 없다

– 북한과 핵무기, 국제 안보

NO EXIT :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분 류 | 정치, 사회

제 목 | 출구가 없다

지은이 | 조나단 폴락

옮긴이 |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지 면 | 304쪽

정 가 | 18,000원

판 형 | 신국판

ISBN | 978-89-97046-60-7 03340

발행일 | 2012년 12월 10일

아산정책연구원

발행처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전화 02-730-5842(대) 팩스 02-730-5876

담당자 최부일 주간 010-5714-2325/bic@asaninst.org

■ 저자에 대하여 – 조나단 폴락(Jonathan D. Pollack)

조나단 폴락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외교정책 선임연구위원이자 존 L. 손턴 중국센터(John L. Thornton China Center) 센터장 대행을 맡고 있으며, 미국아시아정책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의 아시아연구 프로그램과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연구위원도 겸하고 있다. 그는 미 해군대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학 교수와 아시아태평양지역학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했고(2000~2010), 그 이전에는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폴락 박사는 중국의 정치·군사 전략, 미중 관계, 한반도의 정치·안보 역학관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과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다.

■ 책에 대하여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불완전하나마 외교적 성취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행보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동맹국이나 적대국, 국제원자력기구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이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도록 거듭 노력했지만, 지난 사반세기 동안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이런 노력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회피해 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전 세계가 대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반도 핵 문제는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

북핵문제 전문가인 저자 조나단 폴락은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격변, 소련의 붕괴, 중국의 부상 등의 맥락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성격이 어떤 사건과 사상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근 10년에 걸친 시간을 자료조사 및 집필에 집중했으며,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 지도부와도 면담하는 등 보다 정확한 북한 핵개발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노력의 산물이 바로 이 책 《출구가 없다 NO EXIT :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이다.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2012.12)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요구한지도 6년이 흘렀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북한의 실제 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극적인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바가 거의 없으며, 북한 역시 이런 전략을 고수할 작정인 듯하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내 모든 이웃 국가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핵무기 개발 패턴은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여전히 북한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통에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점차 료원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출구가 없다』에서 분석하고 있는 북한의 지난 한 핵 역사를 고려할 때 북한의 이런 반응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하지만 북한은 전면적인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지 않으며, 핵탄두 미사일 탑재 능력을 아직 증명하지도 못했다. 이는 정치적 혹은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기술 및 자원상의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나, 결국 자국의 드높은 핵 열망을 실현하기까지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엄청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잠재력의 일부 핵심 요소 역시 만만치 않게 불확실하고 비밀에 싸여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핵분열 물질 보유고이다. 북한의 현재 보유량 또는 앞으로의 예상 보유량을 둘러싼 추정치는 제각각이다. 물론 어느 쪽이 되었건 ‘모호함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믿고 있는 북한은 향후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자국의 잠재적 경로를 가급적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핵 열망과,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적·경제적 수단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의 저자들은 북한이 (적국에게 “전례 없는 핵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위협하고는 있지만) 핵 탄두를 소형화할 수단도 자원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북한의 핵무기 활용법은 전면전 발발 시 핵무기를 자국 내에 터트리려 외세의 침입을 멈추거나 지연시키는 것뿐이다”라고 평가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 번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지만 2009년 5월 제 2차 핵실험 이후 아직까지 추가 실험은 없었다. 핵실험장의 갱도 굴착 징후가 대거 포착되면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혹은 핵실험들)이 임박했음을 확신했었다. 북한이 추가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핵분열 물질 보유량의 한계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이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재정적 비용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요인 역시 작용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2년 봄, 북한에게 2006년과 2009년의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가리키는 징후가 여러 군

데서 포착되었다. 두 차례 모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 후 유엔안보리 비난 성명, 곧 이어 핵실험 감행’이라는 동일한 패턴을 밟았다. 같은 해 3월 16일, 북한은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중단을 골자로 하는 북미간 2·29 합의를 돌연 파기하고) 인공위성 발사 시도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엔안보리가 다시 한 번 북한의 행동을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며 추가 제재를 가하고 이에 북한이 불특정한 보복 ‘조치’를 결의하는 등,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제 시간 문제인 듯 보였다.

하지만 추가 핵실험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외부 전문가들은 다른 분석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북한이 자국의 핵무기 설계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추가 실험 없이는 북한이 제대로 된 핵억지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스탠포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가 대표적이다). 헤커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핵분열 물질로 사용할 심산이라면, 검증되지 않은 핵무기 설계에 기반해 전략 계획을 세울 리가 없다고 본다. 이와는 반대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는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이 지금은 폐쇄된 영변의 흑연감속로에서 재처리된 핵분열 물질을 보충할 목적으로,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헤커나 올브라이트, 그 외 저명한 핵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정보를 전면 공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북한 핵의 미래에 관한 모든 가설은 그저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는 물론이거니와) 서구 과학자들의 영변 방문을 북한이 중단시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2004년부터 7년 간 지그프리드 헤커는 북한의 허가 하에 북한의 주요 핵 관련 인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며, 방문 기간 동안 핵 시설을 관찰하고 관련자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북한 비자를 받으려는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헤커는 2010년 말 이후 북한을 방문할 수 없었다. 이때 이후로 북한의 핵 진행 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와 분석은 위성 사진에 나타나는 영변의 움직임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자체 설계 기술에 기반했다고 알려진 실험용 가압경수형원자로 건설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렇다면 북한의 목적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원자로를 건설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저농축우라늄의 생산을 합리화했다. 가동준비가 완료되면 원자로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핵 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이 “추호도 양보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권이라고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출구가 없다』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듯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핵 에너지의 민간 영역 활용’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왔다. 북한 정책에 흑여 모호함이 있었다 해도 이는 오래 전에 사라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중 발표한 ‘공동성명’을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수호하고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보란듯이 건설할 것이다.”

하지만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공공연한 선언과는 달리 북한의 현재 지도자들은 추가 핵실험이 가져올 정치적 비용을 더욱 의식하는 듯 보인다. 아마도 북한의 경제 및 에너지 원조국이자 정치적 지지자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가장 클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유일한 외부 세력이다. 북한의 핵 실험 중단을 촉구한 중국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김정일과는 달

리, 그의 아들 김정은은 아직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북한이 핵 실험을 또다시 고려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의 의사를 더욱 명확히 전달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4월 말, 제3차 핵 실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 추이티엔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례적일 정도로 분명한 논평을 내놓았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이는 관련국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 이해관계 역시 해하기 때문이다. …… 어느 쪽도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작정이라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에 다시 한 번 반기를 들고자 할 수 있다. 또는 북한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더욱 해가 되는 행동을 할까 내심 두려워한 중국이 (비록 경고는 했을지라도) 북한에 실제로 제재를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결국, 핵을 향한 북한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북한은 여전히 핵 역량에 기반해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장비”를 명확히 언급한 것이 한 예이다.

자국을 피해자로 보는 민족주의적 시각이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만연해 있으며, 북한 지도층이 보기에 이는 국내외 우선순위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이 심상치 않은 말은, 핵무기 개발을 향한 북한의 뿌리깊은 확신을 바꿔보고자 하는 모든 열망들이 얼마나 큰 도전 과제에 봉착해 있는가를 단번에 드러낸다. 북한 지도층은 여전히 핵무기를 체제 정체성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긴다. 북한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국의 핵능력을 다른 나라가 결국 인정해야만 하는 자명한 사실로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지도층의 그러한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이 동북아에 가져올 끊임없는 위협에 신중히 대비하고, 더 넓게는 핵비확산체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목차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영문판 서문

1장 세상에 하나뿐인 체제

김일성의 부상(浮上)

김일성의 눈에 비친 적대적인 세계

체제 구축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2장 핵의 기억과 핵 전망

한국전쟁과 1950년대 미국의 군사 계획
북한과 평화적인 원자력
핵 기술과 동맹 정치
난공불락의 요새
양면전에 대한 두려움

3장 한반도 핵화 전략

공산주의 세계의 변모
핵 미래를 고민한 김일성
승계
북한이 열어젖힌 핵무기의 문

4장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전략적 포기
핵 계산
제네바합의로 가는 길
김정일의 집권

5장 핵 도발

제네바합의의 붕괴
북한의 불안과 분노
휴전과 실험
합의와 교착 상태

6장 핵 주장

다시 시작된 저항
2009년 5월 핵 실험
중국 변수
전략적 국외자

7장 결론

출구가 없다?
북한의 미래
한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의 전략적 선택
미국의 전략적 선택
실패는 선택인가?

주석

■ 이 책에 대한 언론보도 및 서평

“그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설명하고 북한 정부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조나단 폴락은 이 놀랍고도 중요한 책에서 이러한 까다로운 문제들과 씨름했고 그 누구보다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 한승주 (전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다른 누구도 조나단 폴락처럼 북핵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 책은 북한의 핵 추구를 여전히 그들의 자위책 또는 반작용적 행동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미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오늘날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에 대한 최고의 필수 지침서다.”

— 에번스 리비어 (프린스턴 대학 우드로윌슨 공공국제정책대학원 레지던스 외교관, 전 미 국무부 동아태지역 담당 수석 부차관보)

“기밀정보에 근거했던 공개 정보에 근거했던, 이 책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분석서다. 조나단 폴락은 이 책에서, 북핵 사태를 오늘날 외교 정책에서 가장 풀기 힘든 골칫거리로 만들어버린 복잡한 역사, 정치, 인물들의 행보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고 있다.”

— 미첼 리스 (워싱턴 대학 총장,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